

2 0 2 1

수국월장[修國月將]

- 수능국어 일취월장

[사관학교 1주차]

[위피백과] 심프_ver.

W e P i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 사관학교 B형 [15~18]

㉠ '논증(論證)'이란 어떤 주장의 옳고 그름을 근거를 들어 밝히는 것으로, 이때 주장은 결론이 되고 그 주장의 근거는 전제가 된다. 논증 방법 중 연역 논증은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의 참이 보장되는 방법이다. 그리스 시대에도 활용되었던 전통적 논증 방법인 연역 논증은 현대 논리학의 기초가 되었다.

흔히 현대 논리학을 연역 논증에 기반을 둔 기호 논리학이라고도 하는데, 그 뿌리는 17세기 독일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였던 라이프니츠로부터 찾을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논리의 유형을 수학적 기호를 활용하여 표현하려 하였다. 그는 명제가 참이 아니면 거짓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참'을 '1'로 하고, '거짓'을 '0'으로 기호화하였다.

그 다음으로 명제들을 결합하는 말인 '...거나'에 해당하는 표현은 수학에서 더하기를 뜻하던 기호 '+'로 대치하고, '그리고'에 해당하는 것은 수학에서 곱하기를 뜻하던 기호인 '•'으로 대치했다. 이렇게 결합된 명제의 진릿 값이 참이면 '=1'로, 거짓이면 '=0'으로 표현했다.

I. 1+1=1	V. 1•1=1
II. 1+0=1	VI. 1•0=0
III. 0+1=1	VII. 0•1=0
IV. 0+0=0	VIII. 0•0=0

그럴 경우 8가지 계산식이 나온다. ㉡ 이를 테면 '라이프니츠는 철학자이거나 수학자이다.'라는 명제에서 '라이프니츠는 철학자이다.'가 참이고 '라이프니츠는 수학자이다.'가

참이면 전체 명제의 진릿값은 참이 되는데, 그것은 왼쪽 표의 'I'과 같이 표현된다. '라이프니츠는 화가이고 수학자이다.'처럼 '그리고'로 결합되는 명제에서 '라이프니츠는 화가이다.'가 거짓이고 '라이프니츠는 수학자이다.'가 참이면 전체 명제의 진릿값은 거짓이 되는데, 그것은 'VII'과 같이 표현된다.

그는 왜 일상 언어로 하는 추리를 수학적 기호를 활용하여 표현했을까? 우리에게 친숙한 일상 언어로 추리의 내용을 표현하면 이해하기는 쉽다. ㉢ 하지만 명제의 진릿값을 판단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잘못된 추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일상 언어로 두 명제의 진릿값을 검토하는 것도 꽤 복잡한데, 여러 명제들이 결합된 것의 진릿값을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수학적 기호의 장점을 활용하였다. 즉 수학적 표현이 지니는 간편성, 정확성, 신속성 등을 연역 추리에 적용한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또한 보편적 과학 언어를 구상하기도 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과학자들은 언어가 서로 달라 연구 성과를 교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과학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었다. 그는 과학 이론을 표현할 때 세계 어디에나 통용될 수 있는 보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왜냐하면 과학은 자신의 가설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학문인데, 논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도 그 내용은 모두 같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언어의 창제를 구상하였다. 보편적 과학 언어로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서 인류를 하나의 사고 공동체로 만들고 혁신적인 과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 요컨대 수학적 표현법과 보편적 과학 언어는 라이프니츠의 혁명적 구상의 핵심이다. 그러나 그의 구상은 200년 동안이나 사장되었다가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주목받기 시작하여, 20세기 초반에 현대 기호 논리학의 체계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때까지도 라이프니츠의 구상은 학자들 사

이에서만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컴퓨터가 등장함에 따라 그의 구상이 일반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컴퓨터 정보 처리 과정의 논리 회로는 라이프니츠의 수학적 표현 방법을 응용한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계어를 사용하는데, ㉥ 기계어는 라이프니츠의 보편적 과학 언어의 구상에 기반을 둔 것이다.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라이프니츠는 언어의 차이가 과학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여겼다.
- ② 라이프니츠의 수학적 표현법이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에 응용되었다.
- ③ 라이프니츠의 수학적 표현법은 현대 기호 논리학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 ④ 라이프니츠는 전제가 많을수록 결론이 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했다.
- ⑤ 라이프니츠는 일상 언어가 명제의 진릿값을 판단하는 데에는 불편하다고 보았다.

2.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두 명제를 '라이프니츠의 수학적 표현법'으로 바르게 표현한 것은? [3점]

— <보 기> —

가. 장미는 직장인이고 주부이다.
 나. 정호는 축구 선수이거나 야구 선수이다.

* '가'의 장미는 실제로 직장인이지만 주부는 아니다.
 * '나'의 정호는 실제로 축구 선수이지만 야구 선수는 아니다.

	가	나
①	1•1=1	0+0=0
②	1•0=0	1+0=0
③	1•0=0	1+0=1
④	1+0=0	1•0=0
⑤	1+1=1	1•0=1

3. ㉠의 주장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생략된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컴퓨터의 기계어는 인간의 언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 ② 컴퓨터의 기계어로 인해 최첨단 과학 기술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 ③ 컴퓨터로 인해 인류의 문명이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 ④ 컴퓨터의 기계어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⑤ 컴퓨터의 등장으로 일반인들에게 라이프니츠의 구상이 널리 알려졌다.

4. 글의 문맥을 고려하며 독서할 때, ㉠~㉤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중요한 개념을 글의 서두에 밝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 다음에 나오는 개념을 명확히 확인하면서 읽어야겠어.
- ② 글쓴이는 추상적인 내용을 제시한 후 그 내용을 쉽게 풀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 뒤에 나오는 사례를 통해 앞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파악해야겠어.
- ③ 글쓴이는 특정 내용을 부각하기 위해 그와 반대되는 내용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 뒤에 나오는 특정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이해해야겠어.
- ④ 글쓴이는 논리 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앞에서 제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아야겠어.
- ⑤ 글쓴이는 핵심 내용을 요약·강조하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아야겠어.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3, 사관학교 [5~8]

(가)

자일을 타고 오른다.
흔들리는 생애의 중량
확고한
가장 철저한 믿음도
한때는 흔들린다.

암벽을 더듬는다.
빛을 찾아서 조금씩 움직인다.
결코 쉬지 않는
무명(無明)의 별레처럼 무명을
더듬는다.

함부로 올라다보지 않는다.
함부로 내려다보지도 않는다.
벼랑에 뜨는 별이나,
피는 꽃이나,
이슬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다만 가까이 할 수 있을 뿐이다.

조심스럽게 암벽을 더듬으며
가까이 접근한다.
행복이라든가 불행 같은 것은
생각지 않는다
발 붙일 곳을 찾고 풀포기에 매달리면서
다만,
가까이,
가까이 갈 뿐이다.

- 오세영, 「등산」 -

(나)

홍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 하고
가르기 전에 건넌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이 문제리,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들어 내고
손발 닿은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面)들아.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러다 금시 절로 면(面)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면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本)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 박재삼, 「홍부 부부상」 -

(다)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肝)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는 여원 독수리야!
와서 뜯어먹어라, 시름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야위어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沈澱)하는 프로메테우스.

- 윤동주, 「간」 -

5.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재의 처지를 수용하는 자세가 담겨 있다.
- ② 유한한 삶에서 오는 허망함이 드러나 있다.
- ③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④ 인생에 대한 깨달음의 과정이 드러나 있다.
- ⑤ 세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 있다.

6. (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반어적 표현을, (나)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동일한 시행을, (나)는 감탄형 어미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가), (나)는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활용하여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7. <보기>는 수업 시간에 (나)에 나타난 '웃음'의 의미를 추리해 발표한 내용이다. 적절한 것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보 기>

ㄱ. '웃음살'은 '박덩이를 사이 하고'를 고려할 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운이 뒤따를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는 웃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ㄴ. '웃음'은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의 의미와 연결할 때, 풍요롭지는 않지만 소박하게나마 행복을 느끼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웃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ㄷ. '웃어'는 '손발 닳은 처지끼리'와 연계할 때, 고달픈 삶을 함께 해 왔던 부부가 서로를 위로하는 과정 에서 나온 웃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ㄹ. '웃다가'는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를 고려할 때, 비참한 현실 상황을 자각한 후 느낀 절망감이 내재된 자조적 웃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ㅁ. '본(本)웃음'은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의 의미를 고려할 때, 가난한 삶의 한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사랑이 담긴 웃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8.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관련 설화]

- 「구토지설」에서 '토끼'는 거북이의 유혹에 이끌려 용궁에 간 후 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지만, 기지를 발휘하여 용궁의 권력으로부터 간을 지켜 냈다.
-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주어 인류의 문명 발달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로 인하여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 코카서스 산중의 바위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고통을 받았다.

[운동주의 시, 「간」에 나타난 시인의 내면 의식]

운동주는 일제의 핍박을 받고 있는 암울한 식민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늘 부끄러워했다. 그의 부끄러움은 식민지 지식인의 양심을 지키려고 애쓰는 '정신적 자아'와 무기력하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육체적 자아'의 갈등에서 촉발된 것이었다. 그가 독립운동의 혐의로 검거된 후 1945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한 사실은, 내적 성찰을 통해 무기력한 자아를 서서히 소멸시켜 나간 그의 양심이 독립을 위한 자기희생이라는 실천적 행동으로 발현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간」은 이러한 그의 내면 의식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 ① '습한 간'은 식민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삶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시인의 부끄러움이 내재되어 있다.
- ② '코카서스 산중'은 '토끼'에게 시련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일제의 핍박을 받고 있는 암울한 시대 현실을 상징한다.
- ③ '여윈 독수리'로 비유된 '너'는 정신적 자아인 '나'를 뜯어 먹으며 살찌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육체적 자아를 의미한다.
- ④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는 시인이 부정적 시대 현실에서 자신의 정신적 자아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 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위해 불을 훔친 죄로 '맷돌'을 매달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시인과 동일시된 대상이다.

[1~4]

‘논증(論證)’이란 어떤 주장의 옳고 그름을 근거를 들어 밝히는 것으로, 이때 주장은 결론이 되고 그 주장의 근거는 전제가 된다. 논증 방법 중 연역 논증은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의 참이 보장되는 방법이다. 그리스 시대에도 활용되었던 전통적 논증 방법인 연역 논증은 현대 논리학의 기초가 되었다.

키워드는 누가 봐도 논증이 확실하네요. 논증에 대한 정의를 때려주고 그 설명을 바탕으로 뒤에서 연역 논증으로 구체화 시킵니다. 화제는 일단 논증, 그 중에서도 연역 논증에 관한 얘기를 할 것임은 확실하고, 마지막 줄을 보니 연역 논증과 현대 논리학을 관련지어서 설명하겠네요. 이게 이 지문의 화제가 되겠습니다.

흔히 현대 논리학을 연역 논증에 기반을 둔 **기호 논리학**이라고도 하는데, 그 뿌리는 17세기 독일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였던 **라이프니츠**로부터 찾을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논리의 유형을 수학적 기호를 활용하여 표현하려 하였다. 그는 명제가 참이 아니면 거짓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참’을 ‘1’로 하고, ‘거짓’을 ‘0’으로 기호화하였다.**

‘현대 논리학을 연역 논증에 기반’을 둔 ‘기호 논리학’이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라이프니츠를 제시합니다. 이 양반이 논리 유형을 수학적 ‘기호’로 표현했대요. 그리고 참은 1, 거짓은 0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라이프니츠가 곧 화제와 직결되는 사례네요. 그리고 느낌상 화제가 구체화된 라이프니츠의 기호 논리학이 지문에서 전개될 듯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반드시 처음 잡았던 화제 안에서 논다는 것 기억하고 쪽 내려가 봅시다.

그 다음으로 명제들을 결합하는 말인 ‘...거나’에 해당하는 표현은 수학에서 더하기를 뜻하던 기호 ‘+’로 대체하고, ‘그리고’에 해당하는 것은 수학에서 곱하기를 뜻하던 기호인 ‘•’으로 대체했다. 이렇게 결합된 명제의 진릿값이 참이면 ‘=1’로, 거짓이면 ‘=0’으로 표현했다.

라이프니츠의 기호 논리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별거 없네요.

그럴 경우 8가지 계산식이 나온다. 이를 테면 ‘라이프니츠는 철학자**이거나** 수학자이다.’라는 명제에서 ‘라이프니츠는 철학자이다.’가 참이고 ‘라이프니츠는 수학자이다.’가 참이면 전체 명제의 진릿값은 참이 되는데, 그것은 왼쪽 표의 ‘I’과 같이 표현된다. ‘라이프니츠는 화가**이고** 수학자이다.’처럼 ‘그리고’로 결합되는 명제에서 ‘라이프니츠는 화가이다.’가 거짓이고 ‘라이프니츠는 수학자이다.’가 참이면 전체 명제의 진릿값은 거짓이 되는데, 그것은 ‘VII’과 같이 표현된다.

아까부터 이야기하는 라이프니츠의 기호 논리학을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거나’ 각각의 경우에 진릿값이 참이면 1 거짓이면 0을 판단하는 과정을 너무나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는 **왜** 일상 언어로 하는 추리를 수학적 기호를 활용하여 표현했을까? 우리에게 친숙한 **일상 언어**로 추리의 내용을 표현하면 이해하기는 쉽다. 하지만 명제의 진릿값을 판단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잘못된 추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일상 언어로 **두 명제의 진릿값을 검토하는 것도 꽤 복잡한데, 여러 명제들이 결합된 것의 진릿값을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수학적 기호의 장점을 활용하였다. 즉 **수학적 표현이 지니는 간편성, 정확성, 신속성 등을 연역 추리에 적용한 것이다.**

기호의 장점을 일상 언어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일상 언어는 이해하기 쉽지만 잘못된 추리의 가능성이 높고, 검토가 복잡한 반면, 수학적 표현(기호)은 간편, 정확,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네요. 기호의 장점을 ‘~성’으로 키워당해서 나타내 비교지점을 잡기는 상대적으로 편했을 겁니다.

라이프니츠는 또한 **보편적 과학 언어**를 구상하기도 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과학자들은 **언어가 서로 달라 연구 성과를 교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과학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었다.** 그는 **과학 이론을 표현할 때 세계 어디에나 통용될 수 있는 보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과학은 **자신의 가설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학문인데, 논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도 그 내용은 모두 같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언어의 창제**를 구상하였다. 보편적 과학 언어로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서 인류를 하나의 사고 공동체로 만들고 혁신적인 과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라이프니츠가 수학적 기호 논리학에 더해 보편적 과학 언어라는 것을 구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라별 언어가 달라서 과학 발전이 저해되기 때문이네요. 그리고 보편 언어가 사용 가능한 것은 결국 ‘논증의 내용은 똑같으니까!’ 라고 하네요. 역시나 논증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점 한번 더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나라별 언어 vs 보편 언어의 구도가 뭔가 아까 본 일상 언어 vs 수학적 표현(기호)의 비교구도와 유사하지 않나요? 나라별 언어는 연구 성과를 교환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는 반면 보편 언어는 소통에 문제가 없고 일상 언어는 잘못된 추리를 할 가능성이 있고 논리적 검토의 어려움이 있는 반면 수학적 표현은 빠르고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었어요. 유사한 비교지점이 반복된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각 개념을 비슷한 범주로 생각할 수 있으니 지문을 읽는 데에 좀 더 편하셨을 겁니다. 더군다나 둘 다 ‘논증(논리학)’이라는 하나의 화제 속에서 전개된다는 점도 알면 더 수월하겠죠.

요컨대 수학적 표현법과 보편적 과학 언어는 라이프니츠의 혁명적 구상의 핵심이다. 그러나 그의 구상은 200년 동안이나 사장되었다가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주목받기 시작하여, 20세기 초반에 현대 기호 논리학의 체계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때까지도 라이프니츠의 구상은 학자들 사이에서만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컴퓨터가 등장함에 따라 그의 구상이 일반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컴퓨터 정보 처리 과정의 논리 회로는 라이프니츠의 수학적 표현 방법을 응용한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계어를 사용하는데, 기계어는 라이프니츠의 보편적 과학 언어의 구상에 기반을 둔 것이다.

문단 첫 부분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화제가 그대로 박혀있습니다! 화제를 잡고 지문을 읽으면 정말 반은 먹고 들어가네요. 지문의 흐름을 잘 캐치하면서 읽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내용은 뭐 별거 없네요. 수학적 표현 방법, 보편적 과학 언어의 예시들이 제시되면서 끝납니다.

1. ④

완전 개소리입니다. 지문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대신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해보자면, 아까 ‘그리고’에 해당하는 것은 전제가 모두 참이어야 결론이 참이었으니까 당연히 전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하지 않을까요?

① 나라 별로 언어가 달라서 연구 성과 교환이 잘 안되어 과학 발전이 저해된다고 했습니다.

② 마지막 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③ 예... 화제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내용을 물어보네요. 틀렸으면 반성합시다.

⑤ 그쵸. 잘못 판단할 가능성도 있고 복잡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학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2. ③

(가)는 ‘그리고’ (나)는 ‘이거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가)는 전제가 모두 참이어야 결론이 참인 것이며 곱하기로 표현되며, (나)는 전제가 하나만 참이더라도 결론이 참인 것이며 더하기로 표현되겠네요.

참이 1이고 거짓이 0이라는 점을 참고해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3. ④

컴퓨터가 사용하는 기계어는 보편적 과학 언어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보편적 과학 언어는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① 지문을 잘 읽읍시다.

② ㉠을 이끌어 내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죠? 보편적 과학 언어에 초점을 맞추시다!

- Q) 보편적 과학 언어는 광가 발전을 가능하게 하니까 최첨단 과학 기술의 기틀이 된다는 말은 맞는 것 아닌가요?

- A) 중요한 건 ㉠의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의 전제입니다. ㉠은 ‘기계어 = 보편적 과학 언어’라는 것이니 결국 컴퓨터 기계어가 보편적 과학 언어의 특징을 갖는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 과학 언어를 사용해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도 지문에서는 드러나지 않구요,

③ ②번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⑤ 라이프니츠의 구상이 널리 알려진 건 아닙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만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는데 컴퓨터가 등장해서 일반인들 생활에 영향을 미쳤을 뿐이에요.

4. ④

‘왜냐하면’ 뒤에 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선지도 한 번 확인해보면서 지문을 다시 읽어보길 추천드립니다. 지문을 읽는 데에 좋은 태도들을 담고 있어요.

[5~8]

5. ③

(가)에서는 '가까이 접근'하는 태도가, (나)에서는 웃으면서 사는 태도, (다)에서는 '간을 지키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① (나)는 수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웃으면서 산다는 것인데, (다)는 도망해 온 토끼처럼 간을 지키자는 것이니 상황을 벗어나는 태도라고 봐야겠지요. (가)는 애매하긴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는 거니까 허용을 억지로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② 유한한 삶에 대한 허망함은 확실히 개소리네요.

④ 뭔가 깨닫는 건 없죠?

⑤ (다)는 간을 빼앗아가는 상황에 부정적인 인식을 느낀다고 간주해서 세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까지 허용 가능할 법 한데 (가)와 (나)는 세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거나 그렇다고 할 만한 대목이 없어요. (가)는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긴 해도 거기에 부정적이지 않고 가까이 간다고 하고, (나)도 힘든 상황이지만 웃고 산다는 것에 주목하니까요.

6. ④

(나)에서는 '~문제리'라며 설의적 표현이 드러나지만 (가)에서는 드러나지 않네요.

① (가), (나) 둘 다 아닙니다.

② (가)에 유사한 시행은 있는데 '동일한' 시행은 없어요. (나)에도 감탄형 어미는 없네요.

③ 둘 다 '~다'라는 어미를 사용하여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어요.

⑤ (가)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은 드러나지 않아요. (나)는 대상을 부르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겠네요.

7. ③

ㄱ. : 행운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절 뒷부분에 금이나 황금 벼이삭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운은 웃음과 관계가 없다고 봐야겠네요.

ㄴ. : 맞는 말이네요. 금이나 황금 벼이삭은 풍요로움으로 볼 수 있고 웃음은 이것들과 관계가 없으니까요.

ㄷ. : 충분히 허용 가능하죠?

ㄹ. : 절망감은 아니죠?!

ㅁ. : 이것도 충분히 허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본웃음이 문제라고 했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허용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면, 앞에 금, 황금 벼이삭을 문제가 아니라고 표현했다는 점을 한 번 생각해보시길 바라요.

8. ③

독수리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인데, 만약 이게 육체적 자아이고 뜯어 먹히는 '나'가 정신적 자아라면, 육체적 자아는 일방적인 고통을 정신적 자아에게 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적 자아가 일방적으로 정신적 자아에게 고통을 주는 건 아니죠? <보기>에서는 그냥 갈등 상황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뜯어 먹히는 것을 소멸과 관련 지어본다면, 정신적 자아가 소멸당하는 것인데, <보기>에 따르면 육체적 자아가 소멸당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틀린 해석이네요.

나머지 선지는 모두 당연하게 허용 가능한 수준입니다.